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가족뉴스 제작' 프로그램

행복 가정 뉴스 "큐"

"안녕하세요. '행복 가정 뉴스'의 윤웅현·김우석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S보드에 대해 고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오후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가족뉴스 제작해 보기' 프로그램의 스튜디오 녹화가 진행됐다.

10월 초 기초 교육을 받은 각 가족은 자신들이 보도할 아이템을 직접 선정했다. 가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일단 생각나는 아이템들을 모두 적은 후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을 골랐다.
아이템을 선정할 때에는 센터에서 빌린 비디오 카메라로 3~4일에 걸쳐 촬영을 마쳤다.
영규(10·마재초 3년)네 가족은 건망증이 심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아이템으로

는 경험을 학교를 소개하는 내용을 촬영했고 시원이(11·월산초 5년)네 가족은 태권도 예절과 가을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디자이너가 꿈인 시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PD가 되고 싶은 꿈도 갖게 되었다.
세 아이, 남편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산미(39·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방송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뉴스들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참 좋았다"며 "매 주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그 결과물이 나온 걸 보니 마냥 신기하다"고 말했다.

엄마와 아빠는 아나운서...아이들은 PD·기술감독 가족들 유쾌한 에피소드 비디오 카메라로 직접 촬영

10월 한달 동안 윤웅현(40·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네 등 세 가족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3시간씩 아이템 선정과 구성안 작성, 뉴스 아이템 촬영, 부조정실 교역 등을 받았고 이날 각각의 역할을 정해 촬영을 진행했다.
이날 녹화에서 부모들은 아나운서를 맡았고 아이들이 직접 스튜디오의 주 카메라 촬영을 담당했다. 또 스튜디오 2층에 위치한 부조정실에서는 PD, 기술감독, 오디오 감독을 맡은 아이들이 제작지원단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 제작에 열중했다.

로 정했다. 구두 신고 나갔다가 슬 마신 후 슬리퍼 신고 들어오는 아빠, 휴대폰 손에 쥐고 휴대폰 찾은 엄마 등 가족들의 유쾌한 에피소드를 영규와 엄마가 직접 촬영했다.
아빠 양복을 입고 수첩을 손에 쥔 그럴듯한 모습으로 리포트를 한 영규는 "촬영한 내용을 보니 조금 쑥스럽다"며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현이(11·화순천태초 5년)네 가족은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

만들어가고 그 결과물이 나온 걸 보니 마냥 신기하다"고 말했다.
교육을 진행한 박정훈 팀장은 "아버지들의 참여율이 조금 낮아 아쉬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로 뉴스를 만들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8분 분량의 결과물은 오는 27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시사회를 갖는다. 11월에도 교육은 계속되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62-650-0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1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가족뉴스 제작해 보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족들이 센터 스튜디오에서 직접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22~24일 광산구 구민회관 앞

구민회관 앞 광장에서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을 연다.

새마을문고 광주지부(회장 정준연)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광주시 광산구

행사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2천여권의 문학·아동·교

양서적이 비치된다.

참가자들은 헌 책을 가져와 비치된 책종 원하는 것 한 권을 바꿔갈 수 있다. 1인당 3권까지 교환 가능하다. 학습용 참고서나 교과서, 월간잡지, 전집류 등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62-361-4680.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간염 퇴치 희망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콘서트 23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희망 콘서트가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대한 간학회와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사로부터 만성 B형 간염 퇴치 명예대사로 위촉된 강 씨는 글락소의 후원을 받아 매년 10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주회를 열어왔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번 음악회는 'A Lyrical Journey'라는 서정적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서거 100주년과 50주년을 맞는 북유럽의 두 거성 그리그와 시벨리우스의 음악 등 낭만주의와 국민주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린 엘리아베스 쿠푸르, 몬트리외 쿠푸르 등을 석권한 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던 강씨는 현재 연세대 음대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음악감독도 맡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프랑스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파트릭 지그마노프스키, 파리고등음악원교수인 오보에 연주자 장 루이 카페잘리, 메조소프라노 엘렌 델라보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카렐 마스 시흥의 지휘로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한다.

프로그램은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바흐의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D단조 2악장',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 D장조 작품 35' 등이다. 티켓 가격 4만원, 3만원, 2만원. 문의 1588-78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 루이 카페잘리



피아니스트 파트릭 지그마노프스키

'영혼의 여정' 임남진 개인전

24일까지 롯데화랑

불교의 태화와 전통 민화를 작업에 접목하고 있는 임남진씨가 24일까지 롯데화랑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임씨는 '영혼의 여정'이라는 주제의 첫 개인전에서 태화의 형식을 빌려 민화와 풍속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그는 불교의 '감로탱화(甘露眞畫·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그림)'라는 신앙적 열망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삶을 풀어내고 있다. '풍속도 I'는 불교적인 체색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으며, '휴(休)IV'는 인간군상의 모습을 스케치한 풍속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풍속도 I'

조선태미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했으며 제4회 신세계미술제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문의 062-221-180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전현의 문화카레

문화지수(CQ)를 키워라

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이하 국민은행)는 이 지역 공연계에선 '큰손'으로 불린다. 매년 10여 명이 넘는 예산을 문화마케팅에 쏟기 때문이다. 말이 10억이든 재벌기업들도 선뜻 내놓기 쉽지 않은 액수다. 국민은행은 이 예산으로 광주를 찾은 명품공연의 티켓을 구입해 VIP 고객이나 임직원들에게 선물한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지난 9월 뮤지컬 '캣츠' 공연 1회 분 전석(1억5천만 원 상당)을 구입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앞서 올 3월에는 뮤지컬 '에비타'를 비롯한 '파워 레인저', '넌센스' 공연에 고객들을 초청해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그 뿐인가. 지난 8월에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의 스폰서로 나선 데 이어 공연계 문화계 유명인사를 초빙해 고객과 임직원들의 소망을 높이는 예술감독을 운영하고 있다.

이화여대 교수 출신인 유희영 서울시립미술관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시범사업으로 '찾아가는 미술관'을 추켜 들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미술관을 찾거나 미술작품을 감상할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을 겨냥한 '출장미술감상교실'이었다. 유 관장의 아이디어에 미술관 일각에서는 "근무시간에 직원들에게 미술감독을 듣게 할 수 있을까(?) 기업들이 벗어나 되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 예산을 깨고 대박을 쳤다. '출장미술감상교실'이 알려지자마자 참여하고 싶다는 기업이나 관공서들의 신청이 줄을 이었다. 신한은행, 웅진도서관, 차병원, 서울지방방과관리청, GM대우 자동차, 행정자치부, 동자세무사 등 신청기업들의 변변 또한 다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문화를 알아야 고객이 보인다"는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모두 1천여 명의 직장인이 '가까이하게 멀었던' 미술감상의 기회를 가졌다. 이 같은 호응에 고무된 미술관은 내년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연중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사례는 이 지역 기업들에게 문화마케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문화체험은 고객들에게 결코 역수로 따질 수 없는 값진 감동을 안겨줄 뿐 아니라 기업 종사자들에게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문화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국립대 경영대학원장인 크리스토퍼 엘리는 최근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기업과 현대인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 '문화지수'(CQ·Cultural Quotient)를 꼽았다. '문화지능·영리카드'라 할 수 있다. 미래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의 생존전략으로 낮은 문화에 적응하는 '문화지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다양한 환경을 통해 문화마인드를 축적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 문화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화두가 됐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Happy Time 영화안내. A banner for a movie guide section featuring various film posters and the text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1544-0600. Movie listings for Megabox including '1관 바르게살자', '2관 궁녀', '3관 내.나.이.아리', etc.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Movie listings for Enter Cinema including '1관 행복', '2관 카핑 베토벤', '3관 궁녀', etc.

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아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 Movie listings for Columbus Cinema including '1관 행복', '2관 카핑 베토벤', '3관 궁녀', etc.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Movie listings for Cines for All including '1관 레지던트아일랜드3', '2관 행복', '3관 궁녀', etc.

무등극장. 총장로 1가 ☎ 232-9106. Movie listings for Mudeung Theater including '1관 러시아워3', '2관 사랑', '3관 궁녀', etc.

제일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Movie listings for Jeil Cinema including '1관 궁녀', '2관 어깨너머의 연인', '3관 행복', etc.

Movie poster for '행복' (Happiness) featuring a couple.

Movie poster for '바르게살자' (Live Right) featuring a man in a military-style uniform.

Movie poster for '비커밍제인' (The Becoming Man) featuring a man and a woman.

Movie poster for '레지던트아일랜드3' (Resident Evil: The Third Umbrella) featuring a woman in a dark, action-oriented setting.

Movie poster for '어깨너머의 연인' (The Love Behind My Shoulder) featuring a couple in a romantic setting.

Movie poster for '궁녀' (The Concubine) featuring a woman in traditional Korean attire.